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의 지시문 유형과 순서도 사용이 배심원들의 이해도와 평결에 미치는 영향*

이 윤 정

한림대학교 법심리학과

조 은 경[†]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배심원들에게 제시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지시문을 심리 언어적 요인과 내용을 기준으로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형사법상의 법적 원칙의 이해를 도와주는 시각적인 보조도구의 제시 여부에 따라 역시 두 집단으로 분류한 3 × 2의 피험자 간 설계이다. 403명의 참가자는 재판 내용을 요약한 스크립트를 보고 피고인의 유무죄와 본 원칙의 전반적인 이해도, 각 지시문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입증요구 정도와 각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심리 언어적 구조가 단순한 지시문이 제시된 경우 회상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시각적 보조도구가 제시된 경우 이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이 포함된 지시문을 읽은 참가자들이 다른 조건에서보다 지시문이 피고인의 무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유무죄 평결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회상 점수와 이해 점수도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시문의 패턴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각적 보조도구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국민참여재판,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배심원 지시문, 배심원의 이해도, 판단 길잡이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림대학교 Group 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HRF-G-201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조은경,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E-mail: ekjo@hallym.ac.kr

배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법적 원칙 이해의 중요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형사법 상의 일반원칙에 대한 이해는 사실 판단 못지않게 중요하다. Steele와 Thornburg(1988-89)도 만약 배심원들이 제시되는 법적 원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 배심원들은 법이 판독 불가능한 수수께끼이며 그에 대한 이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Finkel(1995)은 만약 배심원들이 지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정의감, 즉 그들의 '상식적인 정의(commonsense justice)'에 근거하여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적 원칙 이해에 대한 중요성은 배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각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 배심원 지시문(jury instruction)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 1항은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 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 37조 1항 1호에서는 위 수권 법률조항에서 명시한 '그 밖에 유의할 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 257조의 2(피고인의 무죄추정), 제 307조(증거재판주의)와 제 308조(자유심증주의)의 각 원칙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동 조와 관련하여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배심원 평결이 중국에 가서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과 의견의 합리성, 적합성, 적정성 보장이 긴요하며, 이 재판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전고법 2008.5.28, 선고, 2008노123, 판결).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Beyond A Reasonable Doubt)'과 지시문 내용이 평결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법적 원칙들 중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Beyond A Reasonable Doubt)'이다(Daftary-Kapur, Dumas, & Penrod, 2010).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증명의 정도에 대한 원칙으로서, 18세기 후반 영국 보통법에 도입되어 1880년 미국 연방 대법원 Miles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 원칙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 307조 2항에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되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지시문 내용이 평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배심제도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미국 등지에서 활발히 연구된 바 있다. 미국의 각 주에서 통용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의 내용에 따라 피험자들의 유죄 평결율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Horowitz & Kirkpatrick, 1996)가 있으며, 수량적인 기술(ex. 91%의 유죄 증명)이 포함된 경우 숫자가 커질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평결 결과가 나온다는 연구(Kagehiro & Stanton, 1985) 결과도 있다. Kerr, Atkin, Strasser, Meek, Holt, 그리고 Davis(1976)는 모의 배심원 연구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에 대한 정의가 배심원들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피험자들을 지시를 주지 않은 집단, 유죄 평결을 위해 완벽하게 확신할 필요는 없다는 '관대한 정의' 집단,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유죄에 어떤 의심이라도 든다면 무죄를 평결해야 한다는 '엄격한 정의' 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결과는 엄격한 정의가 제시된 집단에서 유죄율이 가장 낮았으며, 배심원의 평결은 증거 평가보다 합리적 의심 없

는 원칙의 다양한 정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배심제도를 도입한 많은 외국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처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에 대한 판사의 설명은 시기와 반복 회수에 따라 배심원들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Heuer & Penrod, 1989; Kassin & Wrightsman, 1979). Heuer와 Penrod(1989)는 증거조사 전에 지시를 한 경우 유죄 판결율이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고,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합리적 의심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면 피고인에 더 유리한 쪽으로 태도를 변경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국내 참여재판에서도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서면 혹은/그리고 구두의 형태로 법적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금까지 배심원들에게 제공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에 대한 지시문은 그 내용이나 형식의 면에서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합리적 의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배심원들이 유죄의 증명에 대한 정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에 대한 이해도와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시도들

법적 원칙, 특히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의 이해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지시문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도가 놀라우리만치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Elwork, Sales, & Alfini, 1982; Hastie, Penrod, & Pennington, 1983). 판사의 지시문은 대부분 복잡하고 길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으며,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Strawn & Buchanan, 1976) 그 이해도가 50%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Elwork & Sales, 1985). 이렇게 많은 배심원들이 판사의 지시사항에 대해 이해를 못하게 되면 평의 과정에서 주장이 강한 사람이 비록 그가 별로 아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좌지우

지하게 된다(Elwork & Sales, 1985).

이러한 낮은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왔다. 법적인 용어들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구술의 형태인 지시를 다시 문서화해서 제공한다거나(Severance & Loftus, 1982), 문서 형태의 지시문 외에 배심원들이 재판 중에도 메모를 할 수 있게 하거나(Heuer & Penrod, 1989), 전문용어를 일상적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서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다. Charow와 Charow(1979)는 ‘바꾸어 쓰기(paraphrase)’, 즉 제시된 지시문을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기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검증은 어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를 다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Severance와 Loftus는(1982) 이러한 방법은 단순히 지시사항의 회상의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배심원들에게 요구되는 법적 원칙을 사실관계에 적용(apply)시키는 능력은 측정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즉, 법적 원칙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려면 그 원칙을 단순히 암기하여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형법상 고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등에 대한 워싱턴(washington) 주의 지시문과 이를 심리 언어학적으로 수정한 지시문을 제시하고, 사건에 대한 회상, 이해 그리고 적용 능력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수정된 지시문을 읽은 집단이, 원래의 지시문을 읽은 집단과 지시문 자체가 제공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해도는 증가하지 않거나 겨우 5% 남짓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justice)와 법적인 원칙이 근거하고 있는 이념이 충돌하거나(Smith, 1993), 지시문의 재작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언어가 생소한 이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박재현, 2010).

법적 원칙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각적 보조도구들

그러나 법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절차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Daftary-Kapur, Dumas, & Penrod, 2010). 이와 관련하여 순서도(flowchart)나 의사 결정 분지도(decision tree)의 제공이 법적 원칙에 대한 정확도와 이해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ell과 Loftus(1985)에 의하면 중앙 경로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시각적 제시는 오직 문장이 제시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남는다고 한다. 도식 이론(schema theory; Bartlett, 1932)은 문장의 이해와 관련한 연구에서 회상과 이해에 있어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순서도, 다이어그램 혹은 의사 결정 분지도(decision tree)와 같은 그림 형태의 제시는 배심원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낯선 자료에 기저해 있는 구조에 역점을 두게 함으로써 구두의 형태로 된 설명을 보충해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Graesser, 1981a; Otto, Penrod, & Dexter, 1994). 또한 인지부하이론(Sweller & Chandler, 1994)에 따르면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자료의 제시는 작업 기억용량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준다고 한다. Dartu(1998)는 순서도 형식으로 표현된 자료의 제시는 특정한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배심원들의 주의를 법에 집중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으로는 Brewer, Harvey, 그리고 Semmler(2004)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정당방위 이론을 사건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 결정 분지도(decision tree)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이해도 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이해도에 있어서는 통제 집단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평의에 있어서 그들의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한 논의의 내용이 통제 집단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정확했다고 한다. 순서도나 의사 결정 분지도(decision tree)의 사용이 미국이나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뉴질랜드 판사들은 배심원들에게 지시를 할 경우 종종 순서도를 사용하며, 영국과 호주에서의 사용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Clough, 2013).

순서도 형식의 '판단 길잡이'(Question Trails)

이런 원리들에 근거하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종종 배심원들에게 '판단 길잡이'(Question Trails)라는 명칭의 이해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순서도, 의사 결정 분지도(decision tree) 혹은 배심원 대조표(jury-checklists)의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판단 길잡이'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질문들은 배심원들에게 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게끔 구성되고 법적 원칙은 이 질문 안에 통합되어 있어야 하나, 어떤 확정된 접근 방법은 없다고 한다(Clough, 2013). 즉, 법적 원칙과 해당 사건의 사실적 요소들을 한 문장으로 통합시켜 배심원들이 각각의 단계인 질문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게 함으로써 마지막 단계에서는 법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Young(2003)에 의하면 뉴질랜드 판사의 3분의 2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배심원들의 법적 원칙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한 Ede 와 Goodman - Delahunty (2013)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판단 길잡이'의 사용은 법적 원칙의 적용능력과 이해도를 높였으며, 평결 난이도를 감소시키고 확신도를 증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 및 가설

지시문 유형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외 법원에서 배심원들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세 종류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지시문을 형식과 내용, 즉 심리 언어적 요인(psycholinguistic factor)과 유죄 증

명기준의 엄격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심리 언어적 요인에 의한 구분은 Elwork, Sales, 그리고 Alfini(1977)의 연구에 따랐으며, 이 연구에서는 배심원에 대한 지시문을 단어(vocabulary), 문법(grammar), 구조(organization)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은 비교적 길고,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절이 포함된 중문 혹은 복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 또한 문장의 구조와 관련하여 Langer, Schultz, Meffat, 그리고 Tausch(1973)는 짧고, 간결하고 잘 구조화되어 있는 문장이 가장 학습하기가 쉽다고 한 바 있다. Elwork 등은(1977) 미시건(michigan) 법원에서 쓰이는 지시문 원문을 제공받은 집단과 위의 원리에 따라 수정한 지시문을 제공받은 집단의 이해도와 회상도를 비교하였는데, 수정된 지시문이 제시된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고 한다. 유죄 증명기준의 엄격성에 따른 분류는 앞서 살펴본 Kerr et. al.(1976)의 집단 분류에 기초하였다. 또한 Horowitz와 Kirkpatrick(1996)의 연구에서도 지시문을 ‘굳게 확신하는’, ‘윤리적으로 확신하는’, ‘주저함이 없는’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윤리적으로 확신하는’ 조건에서 가장 높은 유죄율이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문에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이 포함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유죄 입증기준의 엄격성을 판단하였다. 이 원칙들은 모두 로마법(Digest of Justinian)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In Dubio Pro

Reo)’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신동운, 2013; 조현욱, 2012).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2041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도 1895 판결 등).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국내 지시문과 한 개의 외국 지시문을 위와 같은 분류에 따라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지시문 A는 지시문의 줄 수가 가장 많고, 3절 이상을 포함한 문장이 한 개, 4절 이상을 포함한 문장도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이 지시문 머리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지시문 B는 줄 수가 가장 적고, 3절 이상을 포함한 문장이 두 개이나 4절 이상을 포함한 문장은 없다(절이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한 문장의 구성요소로서, 대등절과 종속절이 포함된다). 또한 지시문 앞부분에 검사의 입증책임은 언급하고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시문 C는 3절 이상을 포함한 문장이 없으며, 일상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시문들을 내용에 따라 구분한 기준은 위 두 원칙이 지시문 머리에 명시적, 선언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이다. 지시문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원칙 자체를 선언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체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지시문 A, B, C는 각각 그림 1, 2, 3에, 그리고 지시문의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 여러분은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죄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 즉, 검사가 모든 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100%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것이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더 이상 합리적이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 반면,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보았음에도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고 무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면, 이는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고 검사의 증명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어서 무죄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림 1. 지시문 A

· 검사는 피고인이 무죄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재판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고 배심원 여러분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평결하여야 합니다.

· 반대로 검사가 모든 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100% 완벽하게 증명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평결하여야 합니다.

그림 2. 지시문 B

형사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무죄 추정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모든 일에는 어느 정도 의심의 여지는 있기 마련이므로, 검사가 제시한 유죄의 증거들이 모든 가능한 의심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유죄라는 확신이 남아있다면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의 증명입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제시된 모든 증거들을 편견없이 비교,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증거들로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림 3. 지시문 C

표 1. 지시문의 유형별 특성

	지시문 A	지시문 B	지시문 C
출 수	10	7	8
심리언어학적 특성	3절 이상 포함 문장	O	X
	4절 이상 포함 문장	O	X
	일상 용어 포함	X	O
지시문의 내용	검사의 입증책임	O	O
	무죄 추정의 원칙	X	O

본 연구 목적과 가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에 대한 지시문의 유형에 따라 피험자들의 유무죄 판단, 이해도, 본 원칙이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유죄 입증 정도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볼 것이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지시문 유형이 유무죄 판단이나 이해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법원에서 쓰이고 있는 지시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순서도 형태의 ‘판단 길잡이’(Question Trails)가 배심원들이 지각하는 평결 난이도, 평결 확신 정도, 이해도, 적응능력과 회상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각적 보조도구의 제시 등이 배심원 이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소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고 있는 바(Brewer, Harvey, & Semmler, 2004; Ede & Goodman-Delahunty, 2013), 본 연구로써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각적 도구의 효용

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회상 능력, 법적 원칙 이해도, 적응능력(이하 '전반적인 이해능력')은 지시문C에서 가장 높고, 지시문A에서 가장 낮을 것이며, 순서도가 제시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을 것이다. 순서도가 제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이해 능력의 차이는 지시문C의 경우 가장 작고, 지시문A의 경우 가장 클 것이다, (2) 지시문C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율이 가장 낮고, 지시문A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3) 유죄 평결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입증 정도와 지시문 내용이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판단은 지시문A에서 가장 낮을 것이고, 지시문C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4) 순서도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결 난이도가 낮고, 평결 확신도가 높을 것이다.

방 법

예비연구

피험자들에게 제시될 재판 내용의 개요에 있어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는 피험자들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에 대한 판사의 설명, 사건의 개요, 검사 쪽과 피고인 쪽에서 주장한 증거의 요지를 읽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예비연구에서의 피험자들은 총 34명, 평균 연령은 22.6세였다. 두 번째 예비연구에서의 피험자들은 총 33명, 평균 연령은 23.1세였다. 첫 번째 예비연구에서는 사건을 그대로 제시하여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전체 34명 중 유죄라고 판단한 피험자들이 21명으로 무죄로 판단한 피험자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예비연구에서는 무죄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사건의 개요를 부

분적으로 각색하여 제시하였다. 사건의 개요를 피고인에게 조금 유리하게 조작한 두 번째 예비연구에서는 유죄가 12명, 무죄가 21명이었다. 유죄의 비율과 무죄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한 7명의 피험자가 결정적이라고 판단한 증거를 재판 자극에서 삭제한 후, 본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본 연구는 M사가 자사 패널인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들을 무작위 추출한 4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재판 자극의 내용을 묻는 네 개의 문항 중 1개 이상에서 정답을 맞히지 못한 26명과, 순서도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에 관한 문제를 맞히지 못함으로써 실험 처치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된 26명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03명(남 201명, 여 202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43.72, 표준 편차는 14.03이었다. 본 연구는 3 (지시문의 유형: 지시문 A / 지시문 B / 지시문 C) X 2 (순서도 제시유무: 제시함 / 제시하지 않음)의 피험자 간 설계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여섯 개의 조건에 각각 무선 할당되었다. 응답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통계는 표 2에, 각 조건별 응답자 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 자극

조원철(2010)의 글에서 발췌한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결(광주고법 2006.12.29선고 2006노115판결)을 토대로 실험 자극을 제작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갔으나, 다음날 밤 아홉시 경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다시 다툼이 일어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해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다음 테이블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가 손은 풀어주었다. 그 후 피

표 2. 응답자 403 명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01	49.9
	여	202	50.1
연령	만 19세 - 29세	84	20.8
	만 30세 - 39세	76	18.9
	만 40세 - 49세	83	20.6
	만 50세 - 59세	80	19.9
	만 60세 이상	80	19.9
최종학력	초졸 이하	1	0.2
	중졸	9	2.2
	고졸	108	26.8
	대졸	246	61.0
	대학원 이상	39	9.7

표 3. 조건 별 임의의 할당된 응답자 수

	순서도: 유	순서도: 무	계
지시문A	59	66	125
지시문B	62	77	139
지시문C	66	73	139
계	187	216	403

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계속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배란다 밖으로 밀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실혈로 동일 밤 10시 경 사망에 이르게 하여 검찰은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배란다까지 갈 수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추락시켰는지 등이었다.

재판 자극은 재판장이 형사법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조건 별로 다른 내용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지시문을 제시한 후, 사건 개요 및 재판 과정과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 세 종류,

변호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 세 종류가 제시되었다. 각 조건의 지시문들은 그림 1, 2, 3에 제시되어 있다. 선행 연구(Clough, 2013; Kelley, 2010)에서 사용된 순서도 형태의 ‘판단 길잡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법학 전문가 1인의 조언을 받아 시각적 보조도구를 제작하였다. 각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적용하였다. 순서도 형식의 ‘판단 길잡이’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절차

위의 내용들은 모두 M사에서 제작한 서버(URL)에 업로드(upload)되었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을 포함한 판사의 지시문 전체가 웹(web)상으로 한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건 개요 및 재판 과정이 제시되는데, 이 때 인터넷을 통한 참가자가 30 초 내에는 다음 페이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이들의 성의 있는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후 순서도 제시 집단에는 다음 웹 페이지에 순서도 전체가 제공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실험 안내문 하단의 동의란에 체크를 함으로써 실험에 대한 동의 표시를 한 후, 사건의 개요 등 실험 자극을 제시받고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 내용 및 자료 분석

먼저, 사건 회상에 대한 4문항,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4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지시문 자체에 대한 판단(지시문의 난이도, 지시문의 유용성, 지시문의 표현이 무죄인 경우에 더 초점을 맞추었는지, 지시문의 내용 상 합리적 의심 없는 원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증명의 정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결), 순서도에 대한 판단(순서도의 유용성, 순서도의 어느 부분에서 무죄라고 생각하였는지, 순서도에서 언급된 원

척이 무엇인지)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을 새로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4개의 질문을 하였다. 회상총점, 이해총점과 적용총점은 각각의 종속측정치로 다루어지고 또한 이를 모두 합한 총점도 전반적인 이해도 총점으로 다루었다.

연구 결과 분석 과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에서 차이가 나타나지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Chi-squa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3(지시문의 유형) × 2(순서도 제시 유무)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시문에 따라 지시문 속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였고, 유죄 집단과 무죄 집단 간에 지시문의 속성과 평결 확신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순서도 제시 유무, 이해총점과 회상총점이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검증에는 .05의 알파 수준이 채택되었다.

결 과

지시문 유형과 순서도 사용이 전반적인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지시문의 유형과 순서도 제공 여부에 따라 전반적인 이해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시문 유형에 따른 회상 점수, 이해점수, 적용점수와 총점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인 이해능력은 사건회상능력, 법적 원칙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적용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시문의 주효과는 회상능력에서만 나타났다, $F(2, 397)=3.845, p=.022$. 지시문 C가 제시되었을 때의 회상점수가 가장 높았으며($M=3.09, SD=.86$), 그 다음으로 지시문 B가 제시된 경우($M=2.87, SD=1.00$), 회상 점수가 가장 낮은 조건은 지시문 A가 제시된 경우로 나타났다($M=2.77, SD=1.00$). 원칙 이해점수에서 지시문의 주효과는 없었으며, $F(2,397)=.138, p=.871$, 적용능력에서도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F(2,397)=.246, p=.782$.

순서도의 제시 유무에 따른 회상, 이해, 적용 점수와 총점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순서도 제시에 따른 각 이해 차원에 대한 주효과는 이해능력에서만 나타났다, $F(1, 397)=5.077, p=.025$. 순서도를 사용한 경우 이해점수가 ($M=3.15, SD=.87$) 순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 4. 실험 조건 별 각 회상점수, 이해점수, 적용점수,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지시문유형	순서도	N	회상점수		이해점수		적용점수		총점	
			M	SD	M	SD	M	SD	M	SD
지시문A	유	59	2.73	1.01	3.34	.71	21.05	3.97	27.12	4.43
	무	66	2.80	.99	2.83	1.02	21.33	4.23	26.97	4.71
지시문B	유	62	2.84	1.04	2.98	.95	21.35	5.26	27.18	5.57
	무	77	2.90	.97	3.09	.92	21.71	4.90	27.70	5.36
지시문C	유	66	3.03	.93	3.14	.89	21.21	3.66	27.38	3.83
	무	73	3.14	.79	2.93	.82	21.80	3.94	27.88	4.43

주. 회상점수와 이해점수는 0점 '매우 낮음' - 4점 '매우 높음'
 적용점수는 4점 '매우 낮음' - 36점 '매우 높음'
 총점은 4점 '매우 낮음' - 40점 '매우 높음'

표 5. 실험 조건별 이해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df	F	η^2	p
지시문(A)	2	.138	.001	.871
순서도유무(B)	1	5,077	.013	.025
A X B	2	3856	.019	.022
집단 내 오차(S/AB)	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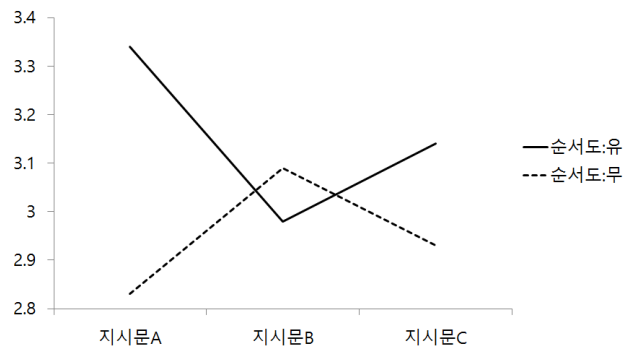


그림 4. 이해 점수에 대한 지시문 유형과 순서도 제시의 상호작용

보다($M=2.95$, $SD=.92$) 더 높았다. 순서도의 회상 능력에 대한 주효과는 없었으며, $F(1, 397)=.691$, $p=.406$, 적용 능력에 대한 주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F(1, 397)=.890$, $p=.346$.

사건의 회상능력에서는 지시문 유형과 순서도 사용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으며, $F(2, 397)=.024$, $p=.977$, 적용능력에서도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F(2, 397)=.047$, $p=.954$. 그러나 이해능력에서 지시문 유형과 순서도 제시 유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397)=3.856$, $p=.022$. 실험 조건별 이해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의 성질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지시문 유형이 평결에 미치는 영향

지시문 유형에 따라 유무죄 평결 비율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지시문에 따라 유무죄 평결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2) = 3.524$, $p=.172$. 또한 지시문의 유형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시문의 유형에 따른 피고인이 유죄일 가능성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2, 400)=.119$, $p=.888$.

지시문의 성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차이

지시문 유형에 따라 합리적 의심 없는 원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유죄입증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시문 유형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2, 400)=2.417$, $p=.091$. 수치상으로는 유죄 증명에 지시문 A의 경우에는 74.4%, 지시문 B의 경우에는 79.3%,

표 6. 지시문 성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지시문 A		지시문 B		지시문 C	
	M	SD	M	SD	M	SD
유죄 평결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 입증 정도	7.44	1.78	7.93	1.68	7.65	1.96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판단	4.96	1.88	6.05	1.97	6.29	1.84

주. '유죄 평결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 입증 정도'는 유죄 판단을 위해 각 지시문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입증 정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판단을 나타내며, 1점 '10%' - 10점 '100%'

지시문 초점에 대한 판단은 각 지시문이 피고인이 무죄/유죄인 경우에 더 중점을 두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자들의 판단으로, 1점 '유죄에 중점' - 9점 '무죄에 중점'

지시문 C의 경우에는 76.5%의 입증 정도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이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지시문의 유형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피험자 간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상한 것처럼 지시문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F(2, 400)=18.185, p=.0001$. 지시문 유형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HSD를 적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시문 A($M=4.96, SD=1.88$)와 지시문 B($M=6.05, SD=1.97$), 지시문 A와 지시문 C($M=6.29, SD=1.84$)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모두 $p=.0001$) 지시문 B와 지시문 C 간에는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지시문 자체의 성격에 대한 각 지시문 조건의 응답자들 판단의 차이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이해총점, 회상총점과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미치는 영향

지시문의 유형이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시문이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시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시문 유형과 순서도 사용여부가 각각 회상총점과 이해총점에 영향을 미쳤으며

로, 지시문 초점에 대한 판단, 이해총점과 회상총점이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시문의 이해 점수가 준거변인인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해 총점은 변량의 1.3%를 설명하며, 이는 유의미했다, $R^2=.013, F(1, 401)=5.141, p=.024$. 또한 부가적으로 유무죄 평결에 따라 이해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죄로 평결했는지 무죄로 평결했는지에 따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에 대한 이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01)=-5.031, p=.0001$. 즉, 무죄로 판단한 집단에서 이해총점이 ($M=3.32, SD=.95$) 유죄로 판단한 집단($M=2.89, SD=.74$)에서보다 더 높았다. 회상총점이 준거변인인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상 총점은 변량의 2.6%를 설명하며, 이는 유의미했다, $R^2=.026, F(1, 401) =11.585, p=.001$. 또한 지시문이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준거변인인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변량의 3.0%를 설명하며, 이는 유의미했다, $R^2=.030, F(1, 401)=13.511, p=.0001$.

표 7. 이해총점, 회상총점과 지시문이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의 유죄일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β	표준오차			
1 지시문 판단	-.169	.046	-.181	-3.676	<.001
2 지시문 판단	-.156	.046	-.167	-3.418	.001
회상 총점	-.295	.094	-.153	-3.126	.002

주. 모형 2: $R^2=.051$, $F=11.789$

지시문의 이해 총점과 회상 총점, 그리고 지시문이 무죄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증거변인인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 선택(stepwise)방법에 의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판단과 회상 총점을 예언 변인으로 가지고 있는 모형 2는 변량의 5.1%를 설명하며, 이는 유의미했다. $F(2, 400)=11.789$, $p=.0001$. 회상 총점이 추가된 모형 2는 R^2 변화량이 모형 1에 비해 .023 증가하여 모형 1보다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2.3% 더 설명하였다. 모형 2의 유의미한 예언변인인 지시문 진술의 초점에 대한 판단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beta=-.167$, $p=.001$ 로, 지시문 초점에 대한 판단이 1 표준편차 증가(무죄 경향)하면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이 .167 표준편차만큼 줄어들었다. 그리고 회상총점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beta=-.153$, $p=.002$ 로, 회상 총점이 1 표준편차 증가하면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이 .153 표준편차만큼 줄어들었다. 예측변인인 이해 총점의 진입으로 인한 모형 3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을 더 이상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순서도 제시여부에 따라서 참가자들이 지각하는 평결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피험자 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집단($M=6.73$, $SD=1.55$)과 제시되지 않은 집단($M=6.66$, $SD=1.55$)간에 통계상 유의미한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F(1, 401)=.178$, $p=.674$. 순서도 제시여부에 따라서 참가자들의 평결 확신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피험자 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제시된 집단($M=6.09$, $SD=1.28$)과 제시되지 않은 집단($M=5.99$, $SD=1.41$)간에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F(1, 401)=.557$, $p=.458$.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에 대한 세 종류의 지시문과 이 원칙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제작된 순서도(시각적 보조도구)의 사용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지시문에서 유죄 평결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 입증 정도와 지시문이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시문 유형이 회상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C가 제시된 경우가 지시문 A가 제시된 경우보다 전반적인 이해도 측면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문장의 구조가 단순하고, 일상용어의 사용 빈도가 다른 지시문에 비해 높

았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을 언급한 지시문 C가 제시된 경우 참가자들의 회상 점수가 가장 높았고,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언급하지 않은 지시문 A가 제시된 경우 참가자들의 회상점수가 가장 낮았다.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지시문 C의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인지부하가 적었고, 작업 기억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건관련 증거들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에 따라 이해점수와 적용점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적용점수의 분포는 완벽한 중간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문항들보다 길이가 더 긴 적용 능력 측정 문항들을 맨 뒤에 배치하여 참가자들의 피로감이 증폭된 것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간결한 문항들을 작성하고, 문항들 간의 순서에 역균형화 처치를 하여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해 점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Severance와 Loftus(1982)의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데, Severance 등의 연구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처럼 실제 쓰이는 지시문들 간의 비교를 했다가 보다 심리 언어학 전문가들이 완전히 수정한 지시문과 실제 지시문을 비교함으로써 지시문 간의 차이가 본 연구보다 더 컸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서도 제시 여부에 따라서 이해총점에 차이를 보였고, 이는 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일단의 선행연구들(Ede & Goodman-Delahunty, 2013; Kelley, 2010)과 일치한다. 그러나 Ede와 Goodman-Delahunty(2013)의 연구에서는 시각적인 보조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원칙과 사실적 요소들을 통합시킨 단계별 질문들을 단순히 문장으로써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Kelley(2010)의 연구에서는 예비적 병합이 된 사건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단순히 일죄에 대한 유죄 여부만을 판단하게 했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Ede와 Goodman - Delahunty(2013)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순서도 제시가 사건 전반에 대한 회상점

수를 유의미하게 상승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공소사실은 살인죄 하나였으며, 양 측의 증거들도 세 개씩밖에 제공되지 않았고, 두 개의 쟁점('피해자가 스스로 난간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란다에서 밀어 추락시켰는지 여부')밖에 없어 시각적 보조도구에 사건의 사실관계나 관련 증거들에 대한 언급이 Ede 등의 연구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순서도 사용 여부에 따라 평결의 난이도와 확신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결정되어야 할 것들이 많을수록 이해보조도구의 영향이 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Heuer & Penrod, 1994).

그리고 가설처럼 순서도 제시여부로 인한 이해 점수의 차이가 지시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의 지시문 A의 경우 순서도 사용여부에 따른 이해점수의 차이가 보다 단순한 지시문 C의 경우에서보다 더 컸다. 본 연구의 가설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지시문의 구조에 있어서 중간 정도를 보이는 지시문B의 경우에는 순서도가 제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해점수가 낮아짐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아마도 지시문 자체로도 원칙 이해도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순서도는 처리해야 할 부가적 정보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순서도가 이해 점수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순서도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지시문B의 이해점수가 가장 높다는 것은 이를 어느 정도 방증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시문의 유형에 따라서 유무죄 비율과 피고인의 유죄판단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참여자의 63.3%가 유죄로 판단하였고, 36.7%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의 전체 평균은 65.5%에 달했다. 순서도의 제시 유무, 지시문의 유형의 각 수준이 피고인의 유죄율에 있어서 서로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

평균이 65.5%라는 것은 시나리오 자체가 어느 정도 유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판단과 회상총점 그리고 이해 총점이 각각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내용의 초점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시문의 유형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종합하면, 지시문의 구조와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이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후 연구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시문의 유형이 그 자체로써 직접 피고인에 대한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시문 내용의 초점에 대한 판단, 사건에 대한 회상, 그리고 법적 원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분석 결과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대해 회상 총점, 이해 총점,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판단이 모두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직 회상 총점과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판단과 이해 총점 간에 상관이 높아($\gamma = .233, p = .0001$) 이해 총점으로 설명되는 변량이 크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설에서 예상하였던 것처럼, 참가자들은 지시문에 따라 지시문이 무죄인 경우에 초점을 맞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 추정의 원칙, 검사의 입증책임 원칙을 모두 언급한 지시문C가 가장 피고인이 무죄인 경우에 중점을 둔 지시문으로 평가되었고, 두 원칙 모두 포함하지 않은 지시문A가 마지막이었다.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판단이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변인이라는 결과를 상기한다면, 이는 지시문의 내용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문항이 피고인의 유

무죄에 대한 판단 문항보다 먼저 제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지시문 초점 문항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질문지 상의 문항의 순서에 따라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등의 결정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사건이 단순한데다가 완벽하게 중립적이지 않아 피고인의 유죄 쪽으로의 편향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시문과 시각적 보조도구의 효과를 완벽하게 검증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즉, 시간적 제약으로 예비 연구를 한 번 더 시행하지 못하여 완벽하게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평결에 미치는 효과를 완벽하게 탐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Ede와 Goodman-Delahunty(2013)가 지적하였듯이, 배심원 의사결정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서의 평결에 의존도가 지나친 바가 있다. 물론 추후 연구에서 편향되지 않은 시나리오가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인지 과정이나 이해도 같은 종속변인의 명확한 조작화에도 또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인터넷 상에서 진행된 연구로 한계점이 있다. 즉, 피험자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작 시 한 웹 페이지에 머물러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설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본 실험의 처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피험자 또한 가려내어 참여자들의 성의 없는 답변의 위험성을 최소한도로 배제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소표집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행하여 그 결과와 인터넷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실질적인 의의를 가지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재판 자극을 동영상이 아닌 사건 개요와 재판 스크립트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타당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Bornstein(1999)의 연구에 따르면 재판을 동영상으로 제시한 경우와 스크립트로 제시한 경우

중속변인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일반 국민참여재판과는 다르게 배심원 평의과정의 영향을 간파한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Rose와 Ogloff (2001)는 평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집단의 경우 평결이나 여타의 다른 판단에서 평의 과정을 거친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평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 본 연구의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가정한 바대로 세 가지 유형의 지시문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판단 문항이 각 지시문의 내용상 차이에 대한 조작 검증 문항으로도 기능하였고, 예상하였던 것처럼 두 원칙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지시문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 각 지시문의 심리 언어적 요인(길이, 문법의 단순성, 일상용어 사용)의 차이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본연구가 실제로 법원에서 제시된 지시문들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나, 추후 연구에서는 심리 언어적 요인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응답자들의 평결이나 이해도 등의 차이가 지시문의 내용 때문인지 심리 언어적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시문의 유형에 따라 참여자들의 사건에 대한 회상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로써 지시문의 내용과 구조가 배심원들이 사건 관련 증거를 회상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더 복잡한 사건을 제시하여 다시 반복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순서도의 제시가 법적 원칙의 이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를 재차 검증하였다. 이는 배심재판에서 시각적 보조도구를 사용하여 배심원들의 법적 원칙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보다 공정한 평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에 대한 지시문의 효과를 직접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법원에 배심원 지시문의 중요성과 그 의의를 일깨워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법적 원칙에 대한 이해와 사건에 대한 회상이 피고인의 유죄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는 단순히 지시문의 유형이 직접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칙에 대한 이해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회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무죄 평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한 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즉, 지시문의 유형에 따른 사건에 대한 회상 능력과 지시문의 성격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앞으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지시문이 통일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지시문의 패터низация는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의 이론적, 연혁적 근거에 충실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의 취지에 맞게 적어도 대법원규칙에 명시되어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심원 평결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배심제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이고 따라서 많은 결함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제도에 제언을 하기 위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질서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에 바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박재현 (2010). 배심제와 법심리학. 서울: 오래.
- 신동운, (2013). 간추린 신 형사소송법. 서울: 지학사.
- 조현욱 (201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433-465.
- 조원철, (2010). 심급별로 사실인정이 달라진 사건의 원인 분석(형사편), 법관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사법 발전재단.
- Bartlett, F. C. (1932).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Oxford, UK: Macmillan. In Kelley, E., L. (2010). *Provided Notes as an alternative to juror notetaking: The effects of deliberation and trial complexity*.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asmania. Australia.
- Bell, B., & Loftus, E. (1985). Vivid persuasion in the courtroo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659-664.
- Bornstein, B. H. (1999). The ecological validity of jury simulation: Is the jury still out?, *Law and Human Behavior*, 23, 75-91.
- Brewer, N., Harven, S., & Semmler, C. (2004). Improving comprehension of jury instructions with audio-visual Presenta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 765-776
- Charow, R. P., & Charow, V. R. (1979). Making legal language understandable: a psycholinguistic study of instructions. *Columbia Law Review*, 79, 1306-1374.
- Clough, J. (2013). *The Role of Question Trails in Assisting Juror Comprehension*.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0th Annual Jury Research and Practice Conference, 8 February 2013, Canberra, Australia.
- Daftary-Kapur, T., Dumas, R., & Penrod, S. D. (2010). Jury decision making biases and methods to counter them. *Legal & Criminological Psychology*, 15, 133-154.
- Dattu, E. (1998). Illustrated jury instructions: A proposal. *Law and Psychology Review*, 22, 67-102.
- Ede, T., & Goodman-Delahunty, J. (2013). Question Trails in trials: Structured versus unstructured juror decision-making. *Criminal Law Journal*, 37, 114-136.
- Elwork, A., & Sales, B. D. (1985). Jury Instructions. In Kassin, S., M., & Wrightsman, L., S. (Eds), *The Psychology of evidence and trial procedure*(pp. 280-297). Beverly Hills, CA: Sage.
- Elwork, A., Sales, B. D., & Alfini, J. J. (1977). Juridic decisions: In ignorance of the law or in light of it? *Law and Human Behavior*, 1, 163-189.
- Finkel, N. (1995). *Commonsense justice: Juror's notions of the la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esser, A. C. (1981a). Reading and writing from multiple perspectives, *Psychocritiques*, 26, 296-296. In Kelley, E. L. (2010). *Provided Notes as an alternative to juror notetaking: The effects of deliberation and trial complexity*.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asmania. Australia.
- Hastie, R., Penrod, S. D., & Pennington, N. (1983). *Inside the J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uer, L., & Penrod, S. D. (1989). Instructing Jurors: A field experiment with written and preliminary instructions, *Law and Human Behavior*, 13, 409-430.
- Horowitz, I. A., & Kirkpatrick, L. C. (1996). A concept in search of a definition: the effects of reasonable doubt instructions on certainty of guilt standards and jury verdicts. *Law and Human behavior*, 20, 655-670.
- Kagehiro, D. K., & Stanton, W. C. (1985). Legal vs. quantified definitions of standards of proof. *Law*

- and Human Behavior*, 9(2), 159-178.
- Kelley, E. L. (2010). *Provided Notes as an alternative to juror notetaking: The effects of deliberation and trial complexity*.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asmania. Australia.
- Kerr, N. L., Atkin, R. S., Stasser, G., Meek, D., Holt, R. W., & Davis, J. H. (1976).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 Effects of concept definition and assigned decision rule on the judgements of mock jur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282-294.
- Langer, I., Schultz, T., Meffer, J., & Tausch, R. (1973). Characteristics of intelligibility of written information and instruction text, *Zeitschrift fuer Experimentelle und angewandte Psychologie*, 20, 269-286.
- Rose, V. G., & Ogloff, J. R. P. (2001). The comprehensibility of jury instructions: A method and an examples, *Law and Human Behavior*, 25(4), 409-431
- Otto, A. L., Penrod, S. D., & Dexter, H. R. (1994). The Biasing Impact of Pretrial Publicity on Juror Judgement. *Law and Human Behavior*, 18, 453-470.
- Severance, L. J., & Loftus, E. (1982). Improving the ability of jurors to comprehend and apply criminal jury instructions. *Law & Society Review*, 17(1), 153-197.
- Smith, V. L. (1993). When prior knowledge and law collide - helping juror's use the law, *Law and Human Behavior*, 17, 5, 507-536.
- Steele, W. W., & Thornburg, E. G. (1988-89). Jury Instructions: A persistent failure to communicate. *North Carolina Law Review*, 67, 77-119.
- Strawn, D. J., & Buchanan, R. W. (1976). Jury confusion: A threat to Justice. *Judicature*, 59, 478-483.
- Sweller, J., & Chandler, P. (1994). Why some material is difficult to learn. *Cognition and Instruction*, 12(3), 185-233.
- Young, W. (2003). Summing up to juries in criminal cases - What jury research says about current rules and practices. *Criminal Law Review*, 665-689.
- 1 차원고접수 : 2014. 10. 03.
수정원고접수 : 2014. 11. 19.
최종게재결정 : 2014. 11. 23.

Effects of ‘Beyond a Reasonable Doubt’ Instruction Types and Use of Question Trail Flowchart on Juror’s Comprehension and Verdict

Yoonjung Lee

Eunkyung Jo

Hallym University

In this research, three different ‘Beyond a Reasonable Doubt’ instruction types are sorted by psycholinguistic factors and contents, which are previously provided forms in actual process. Presentation of visual aid for better com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is another variable. To sum, this study is 3 x 2 between-subjects design. 403 peopl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y responded to the questions regarding guilty judgements and degree of understanding after reviewing summary on the dramatized actual criminal cases. They were also required to consider the minimum prerequisite for deciding ‘guilty’ or ‘not guilty’, as well as on which side of the judgements the instructions were focused. As results, recall scores are appeared relevantly higher with simpler instruction than other types, for understanding scores, with visual aid than without it. Also, instruction containing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prosecutor’s burden of proof is considered to be more emphasized on the ‘Not guilty’ side than ‘Guilty’ one. Unexpectedly, emphasis on the ‘Not guilty’ side in instruction, recall scores and understanding scores are rather clearly appeared as a significant preestimated variable on the percentage of ‘Guilty’ judgement. This research raised the necessity for standardization of the jury instructions in the korean court, accompanying with the positive effect on the understanding with use of visual aid.

Key words : *beyond a reasonable doubt, jury instruction, jury comprehension, visual aid, Question Trails*

부 록

판단 길잡이('Question Trails') 사용 집단의 순서도 자극

